

2020년 1월 8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지정학적 리스크 부담 속 하락 전환 반도체 업종 강세 Vs. 원유 서비스 업종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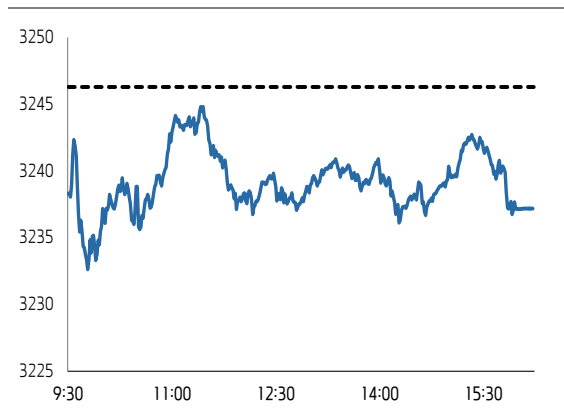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지정학적 리스크, 반도체 업종 강세

미 증시는 양호한 경제지표와 반도체 관련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 하기도 했으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하는 등 부담이 이어감. 대체로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부진한 모습(다우 -0.42%, 나스닥 -0.03%, S&P500 -0.28%, 러셀 2000 -0.30%)

미 증시는 중동 리스크라는 하락 요인과 양호한 경제지표 및 반도체 업종 강세라는 상승요인이 충돌하며 보험권 등락. 중동을 둘러싼 리스크가 확산 되는 경향을 보임. 특히 이라크에서 독일, 영국, 나토군이 철수한다고 발표하는데 이어 이라크 의회가 결의한 미군 철수안에 대해 이라크 정부가 미국에 공식적으로 미군 철수를 요구. 물론 트럼프는 미군의 이라크 철수를 거부한다고 발표. 더불어 미국의 B-52 폭격기가 인도양에 배치되고, 특수전 부대와 상륙 준비단 파견 등 미국의 병력이 이란 주변으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도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요인. 미 증시는 이러한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아지자 대부분의 종목들에 대한 매물이 출회. 다만, 이란 정부가 전쟁 비용 부담 등으로 실제적인 군사적 충돌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아 조정은 제한.

이런 가운데 12 월 ISM 서비스업지수가 전월(53.9) 보다 개선된 55.0 으로 발표되고, 11 월 공장 수주도 전월 대비 0.7% 감소 했으나, 예상(mom -0.8%)보다 양호했고, 변동성이 큰 운송을 제외한 수주는 전월 대비 0.3% 증가하는 등 경기에 대한 기대가 유입되자 하락은 제한. 더불어 마이크로칩(+8.78%)과 웨스턴디지털(+6.77%)에 대해 금융서비스 업체인 COWEN 이 예상보다 빨리 D 램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며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상향 조정하자 급등. 마이크로칩(+6.71%)도 분기 실적 전망 업데이트를 통해 매출을 12 월 발표 보다 1.1% 상향 조정하자 급등하며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이끔. 이 결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8% 강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0.95	2,175.54	홍콩항셱	28,322.06	+0.34		
KOSDAQ	+1.24	663.44	영국	7,573.85	-0.02		
DOW	-0.42	28,583.68	독일	13,226.83	+0.76		
NASDAQ	-0.03	9,068.58	프랑스	6,012.35	-0.02		
S&P 500	-0.28	3,237.18	스페인	9,579.80	-0.22		
상하이종합	+0.69	3,104.80	그리스	924.69	+0.50		
일본	+1.60	23,575.72	이탈리아	23,723.38	+0.6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78%

마이크론(+8.78%)과 웨스턴디지털(+6.77%)에 대해 코웨이 업황 개선이 빨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이견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두 종목 모두 급등했다. 마이크로칩테크(+6.71%)는 지난 12월 발표했던 매출 가이드스를 이날 1.1% 상향 조정하자 급등했다. 이런 가운데 아나로그디바이스(+2.28%), 퀄컴(+2.84%), AMAT(+2.89%), 램리서치(+2.44%) 등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인텔(-1.67%)은 AMD(-0.29%)가 인텔과 경쟁하기 위한 7nm 기반 노트북 칩을 발표하자 하락했다. 이 결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8% 상승했다.

테슬라(+3.88%)는 중국 시장 공략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세를 보였다. 에너지 업체인 아파체(+26.79%)는 수리남에서 원유 매장지역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자 급등했다. 반면, 이라크에 주요 시설이 있는 셰브론(-1.29%)은 원유시설에서 노동자들을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엑손 모빌(-0.82%)도 배당금 삭감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하락했다. 제약업종인 머크(-2.66%)는 폐암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일부 실패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JP모건(-1.70%) 등은 투자이견 하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20%	대형 가치주 ETF(IVE)	-0.38%
에너지섹터 ETF(OIH)	-2.18%	중형 가치주 ETF(IWS)	-0.19%
소매업체 ETF(XRT)	-0.26%	소형 가치주 ETF(IWN)	-0.51%
금융섹터 ETF(XLF)	-0.65%	대형 성장주 ETF(VUG)	-0.03%
기술섹터 ETF(XLK)	-0.04%	중형 성장주 ETF(IWP)	-0.0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96%	소형 성장주 ETF(IWO)	-0.18%
인터넷업체 ETF(FDN)	+0.05%	배당주 ETF(DVY)	-0.12%
리츠업체 ETF(XLRE)	-1.14%	신흥국 고배당 ETF(DEM)	-0.57%
주택건설업체 ETF(XHB)	-0.4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09%
바이오섹터 ETF(IBB)	+0.03%	미국 국채 ETF(IEF)	-0.14%
헬스케어 ETF(XLV)	-0.20%	하이일드 ETF(JNK)	-0.07%
곡물 ETF(DBA)	+0.18%	물가연동채 ETF(TIP)	-0.31%
반도체 ETF(SMH)	+1.67%	Long/short ETF(BTAL)	-0.1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1.39	-0.21%	+1.76%	+5.36%
소재	372.41	-0.21%	-2.76%	-0.77%
산업재	698.18	-0.12%	+1.57%	+2.49%
경기소비재	992.87	-0.13%	+0.82%	+4.16%
필수소비재	637.39	-0.73%	-1.42%	-0.40%
헬스케어	1,184.41	-0.24%	-0.02%	+2.18%
금융	506.82	-0.67%	-0.60%	+0.84%
IT	1,624.59	-0.11%	+1.21%	+5.71%
커뮤니케이션	185.17	-0.04%	+2.15%	+3.17%
유틸리티	324.34	-0.20%	-0.71%	+1.64%
부동산	236.40	-1.20%	-1.01%	-0.5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한 외국인 행보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5% 상승했으나 MSCI 신흥 지수 ETF 는 0.07%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이 2,352 계약 순매도 했으나 0.15pt 상승한 292.55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66.9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며 하락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글로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인 요인은 이란과 미국의 전면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미국이 B-52 폭격기를 이란 주변에 배치하고, 상륙준비단도 파견하는 등 군사적 충돌 우려가 높아지자 오늘은 유럽과 미 증시가 부진했다. 이는 오늘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78% 상승한 점은 관련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된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업황 바닥론이 유입되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44%나 급등했었다. 이를 감안 실적 발표 이후 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미국 반도체 지수 상승 등으로 인한 관련 종목들의 변화는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 관련 종목군에 대한 외국인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서비스업 지수 개선

12 월 미국 ISM 서비스업지수는 전월(53.9)이나 예상(54.5) 보다 개선된 55.0 으로 발표되었다. 세부항목을 보면 기업활동지수(51.6→57.2)가 큰 폭으로 개선되었으나 고용지수(55.5→55.2), 신규수주(57.1→54.9) 등은 부진했다.

11 월 공장주문은 전월(mom +0.2%) 보다는 부진한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나 예상(mom -0.8%) 보다는 양호했다. 한편, 변동성이 큰 에너지를 제외한 수주는 전월 대비 0.3% 증가해 견고함을 보였다.

11 월 미국 수출은 전월 대비 0.7% 증가했으나 수입은 1.0% 감소해 무역적자 폭이 431 억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과의 무역적자는 전월(278 억 달러) 보다 감소한 256 억 달러를 기록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일부 되돌림이 나타나며 하락 전환

국제유가는 미국이 B-52 폭격기를 배치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여전히 이란과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미뤄놓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승에 따른 일부 되돌림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한다.

달러화는 양호한 경제지표가 발표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한편,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입되기는 했으나, 이란이 전쟁비용 부담과 원유 수송이 방해될 경우 중국 등 이란에 우호적인 국가들이 멀어질 수 있어 실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자 엔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ISM 서비스업지수 개선(54.3→55.0)과 무역적자가 431 억 달러를 기록해 트럼프 취임후 최저를 기록하자 상승했다. 다만, 미국이 B-52 폭격기를 인도양에 배치하는 등 여전히 이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상승폭은 제한되었다.

금은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되며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이란 우려가 여전히 발목을 잡은 가운데 미국 경제지표 개선으로 인해 혼조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80% 철근은 0.31%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2.70	-0.90	+1.65	Dollar Index	97.002	+0.34	+0.64
브렌트유	68.27	-0.93	+2.40	EUR/USD	1.1146	-0.46	-0.60
금	1,574.30	+0.35	+3.67	USD/JPY	108.53	+0.15	-0.07
은	18,393	+1.18	+2.18	GBP/USD	1.3118	-0.40	-1.05
알루미늄	1,816.00	-0.93	-0.60	USD/CHF	0.971	+0.27	+0.46
전기동	6,149.00	+0.17	-1.13	AUD/USD	0.6867	-1.05	-2.19
아연	2,346.00	+0.92	+1.73	USD/CAD	1.3004	+0.30	+0.11
옥수수	384.50	-0.06	-0.97	USD/BRL	4.0658	+0.01	+1.06
밀	550.25	+0.05	-1.03	USD/CNH	6.9431	-0.38	-0.27
대두	944.00	-0.08	-0.89	USD/KRW	1166.40	-0.49	+0.86
커피	122.40	+0.20	-7.38	USD/KRW NDF1M	1166.95	+0.02	+1.06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823	+1.40	-9.45	스페인	0.395	+0.40	-6.80
한국	1.633	+7.60	-4.90	포르투갈	0.361	-0.40	-7.30
일본	-0.005	+1.50	+0.60	그리스	1.384	-0.80	-4.70
독일	-0.285	+0.20	-10.00	이탈리아	1.374	+1.50	-3.50